

A+부페, 아시안부페 테이블서비스로 전환 명령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새 규칙을 따르지 않은 캘거리 뷔페 레스토랑이 두 곳이 테이블 서비스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712 Macleod Trail SE에 위치한 A + Buffet Sushi and Bar와 9125 Bonaventure Drive SE에 위치한 Asian Buffet은 모두 8월

7일 구두 경고를 받은 후 8월 11일에 공중 보건 명령을 받았다.

두 경우 모두, 검사관은 식당에서 직원이 접시와 식기를 나눠주고, 사람들의 흐름을 제어하고, 사용 후 식기를 교체하고, 적절한 손소독을 보장하지 않은 채 고객 뷔페에서 직접 음식

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적발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여 뷔페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었다. 레스토랑 주인이 직원이 일부를 요리하도록 하고 고객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경찰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뷔페는 여전히 허용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춰라” 9년째 '65세'-여야도 논의 활발



지난 4월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복수국적 조건완화'가 현실화할 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론토동포사회에서는 9년 전과 달리 동포사회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복수국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이 국적허용 연령을 낮출 적기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강찬식 전 무역인협회장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추는 것은 한국과 해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한국 출입국이 용이해지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경제

활동이 편해질 것으로 경제인들에게는 필수조건”이라고 12일 강조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허용연령을 무조건 낮추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발전이 이바지하는 경제인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수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 회장은 “과거에도 보면 이와 관련한 논의는 늘 흐지부지 됐다”며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65세부터의 이중국적 허용은 실익이 별로 없다.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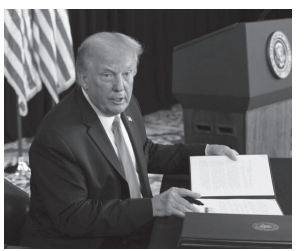
최근 여야 의원 43명이 참여, 지난달 출범한 '세계한인경제포럼'의 대표를 맡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현실화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경제활동 연령이 동포가 복수국적을 얻으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돈이 있어야 시행하지”

트럼프 경기부양 조치에 주정부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명한 행정조치에 대해 주(州) 정부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주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후속으로 서명한 행정조치 중 매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 주의 재정 여건상 무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되, 나머지 100달러는 주정

부의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를 시행하려면 뉴욕 주 차원에서 연말까지 40억 달러(한화 약 4조7천억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실업자 복지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베셔 캔터키 주지사도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주 정부도 행정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캔터키주가 행정명령에 규정된 대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려면 연말까지 15억달러(약 1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베셔 주지사의 설명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인 애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면 다른 곳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각 주 정부는 추가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매주 평균 350달러 수준의 공식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반발 탓에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중 주 정부의 100달러 예산 부담을 제외하고 연방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300달러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전 교사들 코로나-19검사



알버타 주 보건 의료 최고 책임자 인 디나 힌쇼박사는 9만 명의 교사가 9월에 교실로 돌아 가기 전에 코로나 D-19 검사를 받기를 권고

했다.

힌쇼 박사는 9월 개학을 앞두고 교육관계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무

증상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면서 학기 내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캐나다 원어민 영어회화 레슨

ENGLISH CLASS
원어민 영어

esl2019canada@gmail.com
Tel : 403-891-3162 / 403-264-4426

LYM VIOLIN LESSON

대입실기 지도/ 영재 스키 교육
West Kesington Tel : 403-689-6485

북/ 장구/ 아쟁/ 징 한국전통예술 레슨

Korean Art Club Tel: 403-510-8077

PIANO LESSON

어린이 조기 교육 전문
Calgary NE

일러스트레이트 / 인디디자인 개인 레슨

Ai Id

Tel : 587-664-1042

코딩 스쿨

CODING BUDDIES

Tel : 403-422-1622

골프 레슨
Beddington Golf
Tel : 403-686-2171

유튜브 제작 실기

셋업부터 올리기까지

You Tube

Tel:403-926-3890

현 화실

Tel (403) 861-9290